

## 第 4 部 : 포스터發表 演題

### 1. 식육중 잔류항균물질 비교조사 - 서울지역 도축소와 돼지를 중심으로 -

변정옥 · 강영일 · 이달주 · 황래홍 · 이양수 · 이병동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국내에서 유해성잔류물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 이래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잔류항균물질 검사실태를 파악하고자, 서울시내 도축장에서 도축된 소를 대상으로 EEC-4-plate method, Charm II, HPLC를 이용하여 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EEC-4-plate method를 이용한 검사결과 총 검사건수 11,867건중 95건에서 양성을 나타내어 0.8%의 검출률을 보였다. 총 도축건수는 1,970,277으로 0.6%의 검사실적을 나타냈다.

2. Charm II를 이용한 검사결과 총 검사건수 552건중 57건이 잔류물질 의심축으로 판정되어 10.3%의 검출률을 보였다.

3. EEC-4-plate method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시료 95건과 Charm II에서 의심축으로 나타난 57건을 HPLC로 정밀정량 검사한 결과 양성반응을 보인 43건(45.3%)과 27건(54.7%)의 검출내역을 보면 oxytetracycline 26건, chlortetracycline 30건, sulfamethazine 7건, sulfadimethoxine 2건, penicilline 3건, ampicilline 1건, sulfaquinoxaline 1건, chloramphenicol 1건이며, 그 중에는 sulfamethazine과 chlortetracycline, sulfamethazine과 oxytetracycline이 동시에 검출이 각각 1건이며, oxytetracycline, chloramphenicol, sulfamethazine의 3종류의 항생제가 중복검출도 1건이 포함되었다

최대검출량은 chlortetracycline 0.34ppm, oxytetracycline 11.29ppm, sulfamethazine 68.16ppm, sulfadimethoxine 0.13ppm, sulfaquinoxaline 4.0ppm, penicillin 0.12ppm, ampicillin 0.4ppm, chloramphenicol 0.04ppm으로 각각 검출되었다.

### 2. 서울지역 어린이 놀이터 모래에서 개 회충류의 총란 조사(II)

조미영 · 강승원\* · 채희선 · 김두환 · 배내수 · 기노준 · 이병동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1년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주변의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에서 채취한 모래에 대해 개 회충류의 충란을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총 650개소의 놀이터 모래 2,600건을 대상으로 개 회충류인 *T. canis*, *T. leonina*, *T. cati*의 충란을 검사한 결과, 39개소의 놀이터 모래 41건에서 *T. canis*의 충란이 검출되었다.

2. 계절적으로 봄에 해당하는 3, 4, 5월에 개회충란이 주로 검출되었으며 다른 계절에는 적게 검출되었다.

3.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와 주택가 주변의 놀이터에 대한 개 회충란 검출률은 각각 9.7%와 2.4%로 큰 차이를 보여 검사대상 놀이터중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가 더 많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4. 모래 채취부위에 따른 충란 검출 결과를 보면, 39개소 놀이터 중 19개소의 놀이터에서는 미끄럼틀 주위에서, 18개소의 놀이터에서는 그네주위 그리고 2개소의 놀이터에서는 그네와 미끄럼틀 주위 모두에서 개 회충란이 검출되었다.

5. 한강을 경계로 하여 강북지역과 강남지역간의 개 회충란 검출률을 비교한 결과 주택가의 어린이 놀이터는 각각 2%와 2.8%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아파트 단지내의 어린이 놀이터는 강남지역이 10.5%, 강북지역이 8.7%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 3.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가금티푸스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임종수 · 박숙희 · 박석준 · 이태욱 · 송화빈 · 박판재 · 정만호

전라남도축산기술연구소

전남지역 양계농장으로부터 1998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병성감정 의뢰된 총 310개 농장의 환계 가검물에 대한 육안적검사, 병리조직학적검사, 세균학적검사 등을 실시하여 가금티푸스로 진단된 58개 농장에 대한 발생역학적 특성 조사 및 분리균주에 대하여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총 310개 질병발생 양계농장 중 58개 농장이 가금티푸스로 진단되어 전체 닭질병 중 18.7%의 발생률을 나타내었다.

2. 가금티푸스의 발생은 년중 5월중에 가장 많이 발생되었고, 월평균 온도가 15℃ 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8월 사이에 58개 농장 중 35개 농장(60%)에서 발생되었다.

3. 사육규모별 닭 질병 발생빈도는 육용계농장에서는 3~5만수 사육농장이 30.4%, 산란계농장은 1~3만수 사육농장이 42.0%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나타냈으며 가금티푸스 발생농장은 육용계농장에서는 3~5만수 사육농장이 43.6%, 산란계농장은 1~3만수 규모 농장이 36.8%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어 사육규모면에서 닭 질병발생과 가금티푸스 발생이 다발되는 사육규모는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4. 58개 농장에서 가금티푸스에 감염된 닭의 육안적병변은 간종대 및 간괴사 병소는 58건(100%), 비장종대 45건(78%), 청동색간 38건(66%), 선위출혈 8건(14%), 심장 결절성 병변 3건(5%)순으로 나타났으며, 육용계와 산란계 모두 비슷한 유형으로 병변이 관찰되었다.

5. 계절별 발생빈도는 여름 23건(40%), 봄 19건(33%), 가을 10건(17%), 겨울 6건(10%)순으로 나타났다.

6. 최근 3년 동안의 발생률을 비교하였을 때 '98. 9.~'99. 8. 12건(21%), '99. 9.~'00. 8. 13건(22%), '00. 9.~'01. 8. 33건(57%)으로 발생이 점점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지역별 발생률을 비교하였을 때 북서부지역은 43건(71%), 남부지역 12건(23%), 동부지역